

# 기업은행장 5파전, 내부출신 관행 10년만에 깨질까

반장식·정은보·유광열 등 후보에 시석중·임상현 등 내부출신 하마평 기업銀, 비대위 꾸려 관료출신 반대 “노조, 낙하산 인사 반대 성명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주로 거론된다. 다만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관료 출신 행장 선임에 반대하고 있어, 차기 행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기재부 출신 인사 하마평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도진 기업은행장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반장식 전 수석은 행정고시 21회를 거쳐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맡은 예산 전문가다. 현재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은보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관

기업은행장 후보자				
 <p><b>반장식</b> 기획재정부 출신</p> <p>2004 기획예산처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2017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2018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현)</p>	 <p><b>정은보</b> 기획재정부 출신</p> <p>2013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 2019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현)</p>	 <p><b>유광열</b> 기획재정부 출신</p> <p>201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201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7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현)</p>	 <p><b>시석중</b> 내부 출신</p> <p>2015 기업은행 마케팅본부 부행장 2017 IBK자산운용 대표이사(현)</p>	 <p><b>임상현</b> 내부 출신</p> <p>2013 기업은행 경영전략본부 부행장 2014 기업은행 경영지원본부 부행장 2016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2017 기업은행 전무이사 수석부행장(현)</p>

과차관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 과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지난 9월부터 맡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대사는 이달 중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방위비 협상이 파행과 재개를 거듭하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은행으로 자리를 옮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인사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부출신 행장을 배출해온 관행이 10년만에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법에 따라 별도의 행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업은행 지분 53.24%를 기재부가 갖고 있는 만큼 기

재부와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기업은행 내부 출신, 시석중·임상현 기업은행 내부에선 외부 출신에 난색이다. 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관료출신 행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달 29일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은행장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 모두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다”며 “관치금융을 우려한 금융노조와 기업은행 노조가 각각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사가 기업은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태용 기업은행 노조 국장은 “리테일 금융으로 전문화된 기업은행에 정부 정책만 다뤄온 관료출신이 오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며 “인사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해 은행에 필요한 인물이 올 수 있도록 기관장 선임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여론이 거세지면서 무게추도 점차 내부출신인사들로 옮겨가고 있다.

내부출신 후보로는 시석중 IBK자산운용 사장이 유력하다. 시 사장은 지난 기업은행 강남기업금융센터장과 기업고객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마케팅그룹 부문장(부행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IBK자산운용을 이끌어 오고 있다.

시 사장은 지난 2016년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김도진 행장과 함께 기업은행장 유력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시 사장은 내부 직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 시장의 경쟁자로는 임상현 기업은행 전무가 거론된다. 임 전무는 기업은행에 입사해 뉴욕지점장, 퇴직연금부장, 경영전략본부 부행장, 경영지원본부 부행장 등을 거쳐 IBK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후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맡고 있다.

임 전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은행 내부에서 최근까지 남아있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현안에 밝다는 평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7일까지다. 금융위는 신임 기업은행장을 12월 중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오픈뱅킹 가입자 239만명

금융위, 총 계좌 551만개 등록 보완사항 개선, 18일 공식출범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실시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239만명을 넘었다. 하나의 계좌로 모든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이후 한달(11월10일~11월28일) 동안 239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해 551만 계좌(1인당 2.3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오픈뱅킹서비스는 지난달 30일부터 10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KEB하나·BNK부산·BNK경남·전북·제주은행)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광주·대구은행이 각각 지난달 18일, 29일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의 총 이용건수는 4964만건(일평균 165만건)이었다.

었다. 출금 이체는 116만건, 잔액조회 3972만건이다.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한 기관은 지난 달 28일 기준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51개로 총 169개다. 은행과 기존 오픈 플랫폼 이용기관을 제외한 핀테크 기업 123개 중 88곳은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승인을 거쳐 기능테스트, 보안상담 및 보안점검을 진행한다.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개선하고 있다.

계좌 등록 시 계좌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했던 부분은 지난달 11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연계해 자동 조회 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7개 은행은 연계돼 있으며, 부산·경남·광주·제주은행 등 4개 은행은 18일 이전에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계좌 등록된 은행에서 출금이체해도 최종 수취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24시간 이상거래 금융(FDS) 탐지결과를 10분 단위로 이용기관에 자동 전송해 하는 시스템도 오는 7일까지 고도화한다.

FDS는 금융거래시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다른 거래 발생을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대형 핀테크 업체는 은행과 협의를 통해 보증인도를 협의하고, 미협의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통합보증계약을 체결한다. 합동훈련을 통해 보안체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 ‘서울 식료품 값’ 뉴욕·도쿄 보다 높아

한은 ‘주요국 물가수준 비교·평가’ 서울 생활물가 337개국 중 26위 영업용 부동산임대료 446국 중 8위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물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생활물가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선진국 평균 수준인 반면 서울의 임대료 수준은 세계 8위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국 물가수준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활물가 수준은 서울의 경우 전세계 337개국 도시 중 26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Numbeo는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주요 국가와 도시의 생활물가, 부동산가격, 인구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2010년대 초반 이후 도쿄, 파리, 런던 등 주요 대도시의 뉴욕 대비 상대적인 생활물가가 하락한 반면 서울은 상승해 뉴욕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서울의 식료품, 의류는 뉴욕보다 비쌌다. 품목별 생활물가를 보면 서울의 식료품물가는 지난달 8일 미 달러화 기

준 128.8달러로 뉴욕(111.7달러)보다

도시	식료품(1)	의류(2)	외식(3)	레저(4)	교통(5)	통신(6)	교육(7)
서울	128.8	332.8	51.3	89.1	62.8	22.4	358.2
뉴욕	111.7	298.2	109	121.5	163.9	63.6	2354.3
도쿄	101.2	319.3	61.3	131.9	133.6	42.2	565.3
파리	95.8	387.2	81.4	77.6	134.9	30.9	938.8
런던	62.7	314.7	97.6	80	267.4	40.1	1682.1

1) 우유1L, 빵500g, 쌀1kg, 치즈1kg, 사과1kg, 바나나1kg, 오렌지1kg, 토마토1kg, 감자1kg, 양파1kg, 양상추1kg, 닭고기1kg, 소고기1kg, 물1.5L, 수입맥주0.33L, 국산맥주0.5L, 와인1병, 계란12구, 2) 청바지1벌, 원피스1벌, 러닝화1켤레, 남성구두1켤레, 3) 일반식당 2인 정식, 맥도날드 각 1식, 4) 피트니스 클럽 1개월 이용료, 테니스코트 1시간 대여료, 영화 1편, 5) 대중교통 편도요금, 월간정기권, 택시요금(기본요금, 1km주행, 1시간대기), 6) 통화료(1분당 선불요금제 기준), 인터넷요금, 7) 유치원, 어린이집

자료=한국은행

준 128.8달러로 뉴욕(111.7달러)보다 비쌌다. 식료품물가는 우유 1L, 빵 500g, 쌀 1kg, 치즈 1kg, 사과 1kg, 닭고기 1kg, 계란 12구, 물 1.5L 등 18개 품목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의류물가도 332.8달러로 뉴욕(298.2달러), 도쿄(319.3달러), 런던(314.7달러)보다 높았다. 의류물가는 청바지 1벌, 원피스 1벌, 러닝화 1켤레, 남성구두 1켤레를 사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 서비스 가격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식당 2인 정식과 맥도날드 각 1식을 기준으로 산출된 외식비와 피트니스 클럽 1개월 이용료 등 레저비, 대중교통 편도요금 등 교통비, 통신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수준은 이들 도시에 비해 모두 낮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도시별 400명 이상 대상, 160개 이상 품목의 가격에 대

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활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서울의 생활물가지수가 뉴욕(100)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빅맥지수(각국의 빅맥가격/시장환율 비율)는 2000년대 들어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맥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 일본, 영국 등에서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맥지수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평가한 각국의 상대적인 빅맥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국가별 물가수준은 대체로 소득수준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선진국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별 물가수준 차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임대료, 물류비용, 인건비 등 기타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주 기자 hj89@

### 청소차기사 정규직

5톤 19-04/야간  
11톤 06시-15시  
55세미만 연봉 4510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포함

서울환경 02)312-7703